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디지털 독점 '아씨 두리안' 박주미-이다연 vs 최명길-윤해영, 이색 고부 케미 맞대결!

2023. 7. 14.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화면 캡처. (사진제공=바른손스튜디오, 하이그라운드)

- 전생vs현생, 같은 시공간 속 극과 극
- 'K-시월드' 온도차 눈길!
- 박주미-이다연, 고부 맞아? '의지+든든' 워맨스 케미!
- 최명길-윤해영, 만나면 '볼꽃각' 으르렁 상극!
- 온화 미소부터 의미심장 눈빛! 티키타카 케미 고부 커플들!
- 쿠팡플레이 '아씨 두리안' 매주 토일 저녁
- 10시 30분 새로운 에피소드 공개!

'아씨 두리안' 고부 커플들의 개성 만점 활약이 작품에 다채로운 매력을 더하고 있다.

쿠팡플레이가 디지털 독점으로 제공 중인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 주역들인 두리안(박주미 분), 백도이(최명길 분), 장세미(윤해영 분), 김소저(이다연 분)가 등장할 때마다 터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케미로 극의 매력을 이끌며 시청자들의 웃음과 긴장을 책임지고 있다.

'아씨 두리안'은 월식이 일어난 어느 밤 두리안과 김소저가 시대를 초월해 단씨 집안과 얽히면서 기묘한 운명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판타지 멜로 드라마로, 스펙터클한 서사와 흥미로운 스토리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가운데 극과 극 고부 케미가 인상적으로 전개되

고 있다.

시어머니 두리안과 며느리 김소저는 시공간을 날아온 탓에 의지할 데라고는 둘 뿐이라 현생에서 더욱 단단해진 고부 관계를 뽐내며 알콩달콩한 케미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의 차이가 느껴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임에도 미래 신문물에 이제 막 적응하기 시작한 '현생 N년차' 동기생이라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김소저는 자나깨나 시어머니 두리안의 건강과 안색을 살피는 마음씨 따뜻한 며느리로서 워맨스를 뽐내며 '찐 가족'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가장 큰 연결고리는 완벽한 남자 언. 전생에서 두리안의 아들이자 김소저의 남편이었던 언은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 두 여인의 눈물바람을 일으킨 바 있다. 현생에서는 재벌가 단씨 집안을 이끄는 회장 백도이의 장손이자 유명 배우 단 등명으로 화려하게 환생하면서 두 여인의 타오르는 희망이자 삶의 이유가 됐다. 이로 인해 두리안과 김소저는 우연히 단씨 집안에 얹혀살게 되면서 눈치밥에 녹록하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단 하루라도 가까이에서 언을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기꺼이 감내할 각오가 돼 있다.

두리안과 김소저가 아기자기한 시부 관계의 사랑스러운 케미를 보여주고 있다면 백도이와 장세미는 만나기만 하면 불꽃을 튀기는 살벌한 앙숙 케미가 흐른다. 천하를 호령하고도 남을 여장부 백도이에게 사사건건 태클을 걸며 반항하는 무뚝뚝한 첫째 며느리 장세미는 눈 밖에 난 지 오래다. 옆친 데 뺏친 격으로 "어머니를 사랑해서 반대로 행동했다"는 장세미의 어처구니없는 고백에 노발대발 악감정까지 겹겹이 쌓이며 쉽게 허물기 어려운 마음의 벽이 생겼다.

특히 백도이와 장세미는 여전히 감정의 평행선을 걷고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냉기류가 흐르고 있어 등장할 때마다 긴장감을 유발하며 극적 흥미를 배가시킬 예정이라 향후 활약상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현생 적응에 한창인 환상의 콤비 두리안과 김소저는 날이 갈수록 서로를 의지하고 아끼면서 한층 더 여유로워진 포스를 뽐어낼 예정이며, 며느리의 일방적인 사랑 고백이 기도 차지 않는 백도이는 만날 때마다 더욱 날카롭게 장세미를 몰아칠 예정이라 갈등 케미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또한 극과 극 온도 차이를 보이는 K 시월드의 다채로운 고부 케미가 회를 거듭할수록 얹히며 리얼하게 그려질 예정이라 확장된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명품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로 주목 받고 있는 토일드라마 '아씨 두리안'은 매주 토일 저녁 10시 30분부터 쿠팡플레이에서 새로운 에피소드들이 공개되며, 언제 어디에서나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다.

쿠팡플레이 공식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CoupangPlay>

쿠팡플레이 공식 인스타그램 : <https://www.instagram.com/coupangplay/>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